

“젊은 선율로 광주이야기 들려줄게요”



9일 광주작곡마당 '창단음악회'

이승규·심효정·최현아·이선영·김민정
전공 떠나 새음악 꿈꾸는 모임 결성

광주에서 새로운 작곡가 그룹이 첫발을 내딛었다. '광주 작곡마당'이 오는 9일(오후 6시) 창단 음악회를 열고 출발을 알린다.

광주작곡마당은 2001년에 출범한 서울 작곡마당(대표 신동일), 2006년 시작된 부산 작곡마당(대표 백현주)에 이어 출범한 단체로 전공과 장르를 초월, 자유로운 음악적 실험을 통해 한국 창작 음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모임이다. 작곡마당은 각 지역별로 매년 1-2차례 작곡 발표회와 음반 발매, 작곡 포럼 등을 열고 있다.

광주작곡마당은 이승규 대표를 비롯해 작곡가 심효정(전남대 음악학과 졸업), 최현아(목포대 음악학과 졸업), 이선영(전남대 음악교육과 대학원 재학), 김민정(이탈리아 g.스폰티니 음악원 박사 졸업)씨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대표는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작곡마당 활동을 하며 곡을 만들어왔다. 광주작곡마당은 광주의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제1회 광주작곡마당 창단음악회 '5개의 시선'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서울, 부산 작곡마당 대표의 축하공연과 더불어 광주작곡마당 회원 5명의 무대로 채워지며, 광주작곡마당 대표의 사회와 작곡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창작곡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



오는 9일 창단음악회를 여는 광주작곡마당 소속 김민정(왼쪽부터), 이선영, 이승규 대표, 최현아, 심효정 작곡가. <광주작곡마당 제공>

있게 다가갈 수 있게 기획됐다.

먼저 신동일 작곡가가 피아노 모음곡 '즐거운 세상'을, 백현주 작곡가가 류시화 시인의 '첫사랑의 강'을 선보인다. 이어 이승규 작곡가가 피아노를 위한 자음상(自音像)을 준비했다. 김민정 작곡가는 '심장 속의 두 방'과, '산유화'를 무대에 올린다. 이선영 작곡가는 가곡 '먼 훗날'과 '환희'를, 최현아 작곡가는 '말할 수 없어', 피아노를 위한 '하루의 걸음'을, 심효정 작곡가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Pit a pat'를 발표한다.

"이번에 출범한 저희 광주작곡마당은 '새로운 음악문화를 꿈꾸는 작곡가들의 모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작곡 전공자들의 동인이 아닌 전공과 무관하게 작곡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누구

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보전대 방사선과를 졸업했습니다. 음대에 가고 싶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작곡마당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규(45) 대표는 "이번 창단 공연을 통해 장르와 전공을 떠나 저마다 색깔을 가진 작곡가들이 젊은 감성으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작곡마당은 이번 창단음악회에 이어 매년 정기공연을 열어 작곡가들이 광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가곡, 실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지역과 관련된 주제와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음악회를 꾸준히 연다는 설명이다. 무료 관람. 문의 010-3093-48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프랑스 코미디 '세라비...' '청년 마르크스'

광주극장 신작 3편 내일 개봉

'세라비, 이것이 인생', '청년 마르크스', '밤셀'...

광주극장이 상반기 가장 주목받는 다큐멘터리 1편과 영화 2편을 7일 개봉한다.

'세라비, 이것이 인생'은 '인터뷰: 1%의 우정'의 감독과 제작진이 총집합한 코미디다. 17세기에 지어진 아름다운 고성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췄다.

베테랑 웨딩플래너 '맥스'는 실수 연발인 직원들, 까다로운 의뢰인,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며 흥 넘치는 결혼식을 만들어간다. 시종일관 폭소를 유발하는 다채로운 장면과 저마다 특보적인 매력을 지닌 코믹 캐릭터가 볼거리다. 공감을 일으키는 시나리오로 프랑스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 석권 및 8주간 박스오피스 Top10을 차지

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카를 마르크스의 젊은 날을 그린 영화 '청년 마르크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아 영화의 의미가 남다르다. 작품은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집필하기 전, 젊은 날의 사랑과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우정 그리고 뜨거운 꿈과 이상을 그리고 있다.

영화 상영 후 오후 7시20분에는 위상복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칼 맑스, 그 우리의 이념적 역사상'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펼친다.

'밤셀'은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기대되는 여성 영화로 꼽힌다. '봄 타운', '삼손과 데릴라' 등 1940년대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이자 오늘날 '와이파이' 기술을 발명한 과학자 '헤디 라머', 음성을 따라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과학적 업적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세라비, 이것이 인생'

정유정 '종의 기원' 미국판 펭귄북스에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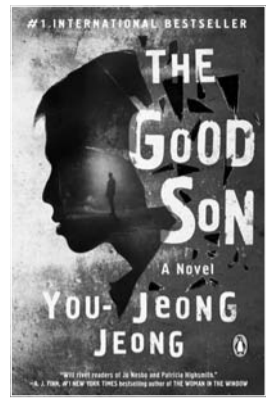
판권 16개국 수출

함평 출신 정유정 장편 '종의 기원'이 미국 최대 출판그룹 펭귄북스에서 '더 굿 선(The Good Son·사진)'이라는 제목으로 5일(현지 시간) 출간됐다.

출판사 은행나무는 이날 "미국에서 공식 출간되기도 전에 사전 주문만으로 초판이 모두 팔려나가 펭귄북스 측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펭귄북스에서 한국 작품이 출간되기는 2013년 11월 황선미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영문 제목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이후 두 번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은 '종의 기원'이 처음이다.

펭귄북스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스티븐 킹"으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 서늘하고 섬막히는 이야기 속에서 페트리샤 하이미스의 '재능 있는 리플리'와 윌리엄 마치의 '나쁜 종자'를 만나게 즐거움"이라고 밝혔다.



소설 '종의 기원'은 평범한 청년이 살인자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 '악인의 탄생'이다. 사이코패스 인물을 둘러싼 이야기로, 2016년 5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앞서 '종의 기원'은 프랑스판이 지난 4월 문학 전문 출판사인 피카에서 출간됐고, 영국판이 5월 대형 출판사 리틀브라운에서 출간됐다. 미국 엘르지는 '올여름 꼭 읽어야 할 32권의 책'으로, 퍼블리셔스 위클리지는 '급주의 신간 16'에 선정했다. 한편 '종의 기원' 해외 판권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16개국에 수출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 상반기 마지막 '월요콘서트' 영화음악 연주

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는 오는 11일(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P&S Woodwind Quintet '자연의 울림 그 숨소리'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영화음악 '마이피어레이디 I Could Have Dance All Night',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퐁텐', '이웃집 토토로 메인 테마곡' 등 친숙한 음악들로 선곡됐다. 클래식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목관악기의 아름다움을 통해 느끼도록 초점을 맞췄다.

목관앙상을 단체인 P&S Woodwind Quintet의 'P&S'는 영어로 PASSION(열정)과 SHARED(나눔, 공유하다)의 뜻으로 삶에 지친 무거워진 마음을 음악으로 회복하고 같이 즐기

는 의미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바순 다섯 명의 미국 및 유럽 유학파 출신들로 구성된 연주자들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자는 이주혜(플루트), 김옥길(호른), 송애리(오보에), 조우리(클라리넷), 조아라(바순), 해설로 김민지 등이 출연한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월요콘서트' 공연장 객석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 하는 것 외에도 관람 후 기념품을 제공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공연일정은 마무리되며, 하반기 공연은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000원(고등학생 이하), 선착순 100명 전화예약 062-670-794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도전하세요

7월3일까지 영상물 접수

미디어·방송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전국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가 오는 7월 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은 '전국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가 주관하고 부산,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참가대상은 만 13-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서와 3분 이내의 공연영상물을 이메일(gjc@kcmf.or.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예선 심사 결과는 7월 9일 발표하며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 10개 팀과 입선 10개 팀이 가려진다.

또한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여름방학 동안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각 팀별로 센터의 방송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영상중계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9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본선경연에서 공연조의 창작 무대를 방송조가 실시간 녹화한 콘테츠로 최종 경연을 펼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kcmf.or.kr/comc/gwangju)를 참고하거나 전화(☎062-650-0336)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예향의 미래,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유네스코 문화 자연 유산은 매력적 글로벌 브랜드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보고, 동유럽을 가다

화제의 전시-공연
ACC, 리얼리즘 미술 & 영상전
폭력과 저항, 전쟁과 평화를 보는 예술의 시선

화제의 공연
열정과 기량, 매력적 무대 매너
'양상블 디토' 공연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그루지아의 기아 칸첼리 & 에스토니아의 아보 파트트

예향의 미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문화의 전지-공연
ACC, 리얼리즘 미술 & 영상전
폭력과 저항, 전쟁과 평화를 보는 예술의 시선

화제의 공연
열정과 기량, 매력적 무대 매너
'양상블 디토' 공연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그루지아의 기아 칸첼리 & 에스토니아의 아보 파트트

노중훈의 꿈의 여행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명주를 만나다
일본 간사이 사계 여행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도쿄의 '핫플'이 된 서점들
책 & 라이프 스타일 파는 도쿄 츠타야 서점

예향 초대석
40여년간 분단현실 그려온 화가 송창
"미학과 시대정신 함께 갈 수 있어"

광주폴리 다시보기 ⑤-1차 폴리 영화 암
공간의 적성, 소풍 여부가 만든
사랑스런 폴리 & 거주장스런 폴리

문화이슈를 읽는 문화관을 찾아서 ⑧
한국비평문학사 발자국 남긴
평론가 김환태

트렌드 따라잡기 ⑧
위장에 행복 채우기 위해
검색하고, 기다리고...
밀레니얼의 식사법

전시 리뷰 <오일 - Zero(無) 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예향이 만난 이사람
개그맨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한 고명한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 기록 KIA 만행 임창용
광주독립영화관 GIFT 관장 윤수안

절과 빛, 문화가 반짝이는
매력도시 광양 羅光陽
매달아트 봉수대 도시 절경 만끽
깊은 숲과 거목 따라 자유여행